

유가 상승에 금리 우려 가중, 증시 부담 확대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유가 상승에 여파에 3 대지수 약세, JP 모건 단기 전망 하향

- 미 증시는 DOW -0.70%, S&P500 -0.33%, NASDAQ -0.12% 하락. 에너지, 기술주 외 업종 전반 하락 가운데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 등 약세
- 앞서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 여파로 금리 상승 우려 높인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에 따른 유가 상승이 투자심리 압박
- JP 모건은 잭슨홀 발언 이후 뉴욕 증시에 대한 단기 전망 강세→전술적 신중·중립으로 변경.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계절성, AI 주 모멘텀 약화 등에 따라 향후 몇주간 횡보가능성 언급

미-이란 한달만에 교전 재개

- 국제유가 상승 WTI \$85.7(+2.8%), Brent \$90.5(+2.7%).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 라라크섬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 로켓 발사대 2 곳을 공습했다는 보도에 상승
- 해당 공격은 미국이 이란에 한달만에 직접 공격을 가한 것으로 향후 확전 우려 자극. 다만 약시오스는 미국 측이 이란 내 전력 재건 차단을 위한 제한적, 주기적인 군사 타격 방안 검토중이라 보도

유가 상승에 인플레이 경계,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

- 국채금리 혼조 10Y 4.757%(+3.5bp) 2Y 4.350%(-0.2bp) 단기물은 앞서 잭슨홀 연설에 의한 변동성 숨고르기, 국제유가 상승에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금리 상승. 바클레이즈는 올해 9월, 12월 두 차례 금리 인상 전망
-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 국채시장에 대해 가장 시장회복력이 있다는 점에서 워시 의장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발언하며 장기물 금리 추가 상승 요인
- 8월 델러스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11.6 전월·컨센 상회. 반면, 8월 시카고연은 PMI 47.1 전월·컨센 하회, 위축국면 진입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CRWD	클라우드스트라이크	+5.8%	연례 컨퍼런스 Fal.Con 2026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및 살롯 AI 에이전트웍스 기반의 차세대 자동화 보안솔루션 팔콘 IQ 공개. 제품 출시와 더불어 일련의 플랫폼 연동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 클리어(신원검증), 코그니전트(CTSH, OT/XIoT 보안), 서블라임시큐리티(이메일 보안 텔레메트리 통합) 등과의 전방위적 플랫폼 파트너십 발표
NVDA	엔비디아	+1.5%	대만 팹리스기업 미디어텍과의 파트너십을 클라우드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전장 부문으로 전격 확대. 미디어텍은 랙 스케일 AI 팩토리용 맞춤형 XPU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NVLink Fusion' 플랫폼을 도입 예정. 엔비디아는 미디어텍이 발행한 \$3.5B 규모의 전환사채에 투자
SPCX	스페이스X	+1.6%	주말사이 일론머스크 CEO는 X를 통해 SpaceX와 테슬라가 각각 연간 100GW 규모의 태양광 생산능력을 구축 중이라고 언급. 또한 AI데이터센터 전력문제 해결 위한 가스터빈용 블레이드, 베인 등 핵심발전 설비 부품 자체생산 추진 소식 전해짐
TSLA	테슬라	+5.5%	9월 3일 사이버캡 최종양산형 버전 공개 행사 개최 예정. 일론머스크 CEO가 예고한 FSD 도로 포드홀 회피 기능 등 자율주행 업데이트 및 조기상용화 기대에 추가 강세
PCG	퍼시픽가스 & 일렉트릭	-20.1%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발표한 산불피해 관련 법안 수정안에 유틸리티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가 급락. Senate Bill 492호 수정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유틸리티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에 같은 캘리포니아 기반 유틸리티 종목인 에디슨인터내셔널(-23.1%)과 섀프라에너지(-3.1%) 동반 하락
MSTR	스트래티지	+4.4%	지난주 \$369.7M 규모(BTC 4,600여개) 매입. 6월 말 이후 첫 암호화폐 매입을 단행했다 공시